

반독재·군정종식 이끈 ‘정치9단’ ... 측근비리·IMF로 추락



故 김영삼 전 대통령 (1927~2015) 연보

- 1927년 12월20일 경남 거제시 장곡면 외포리 출생
- 1947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철학과 입학
- 1951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철학과 졸업, 장택상(張澤相) 국회의원사무관으로 정계 입문. 손영순 여사와 결혼(결혼해 2남 3녀 됨)
- 1954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거제에서 만25세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이후 5.6.7.8.9.10.13.14대 총 국회의원 9선). 3선 개헌에 합의해 자유당 탈당, 민주당 창당 참여
- 1958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에 출마했다 낙선
- 1960 어머니 박부연 여사 복한 고장집회 의뢰 사망,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에 출마해 당선
- 1963 군정연장 반대집회, 기수위원로 서대문형무소에 23일간 수감. 제5대 대선에서 윤보선 후보 당선을 위해 민정당 대변인 활동.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에 출마해 당선
- 1964 민주당 창당 참여
- 1965 민주당 원내총무 선출(최연소 원내총무)
- 1967 신민당 창당 참여, 신민당 원내총무(5년 5선, 최다선 원내총무).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에 출마해 당선
- 1969 박정희 대통령 3선개헌 반대투쟁 주도하다 초선태러 당할
- 1970 40대 기수론 제창, 제 7대 대선 신민당 대통령후보 지명대회 출마
- 1971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에 출마해 당선
- 1972 유신 선포에 미국에서 급거 귀국해 개혁연금 당할, 반유신투쟁 전개
- 1973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에 출마해 당선.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해 대정부질문에서 박정희정부 태러행위 규탄
- 1974 신민당 총재 선출(만45세 최연소 이당총재)
- 1975 박정희 대통령과 이어 영수회담
- 1978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에 출마해 당선
- 1979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총재로 재선출. YH 어음 신민당사 농성 때 경찰에 강제 연행. 법원 결정에 의해 신민당 총재 직무박탈 정치, 국회의원직 재명
- 1980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3년간 불법 가택연금 시작
- 1981 민주선약의 발족
- 1983 민주회 요구 단식투쟁(23일간)
- 1984 민주화추진협의회(민주협) 발족, 민주협 공동의장에 추대
- 1985 신한민주당 창당고문으로 추대, 민족문제연구소 설립
- 1986 대통령 직선제 개헌 1천만 서명운동 전개
- 1987 신한민주당 탈당 후 통일민주당 창당, 6월 민주시만항쟁 주도. 통일민주당 총재. 제13대 대통령선거 출마(2위로 낙선)
- 1988 통일민주당 총재,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에 출마해 당선
- 1989 한국 정치인 최초로 소련 방문
- 1990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회당 3당 합당 선언.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으로 추대
- 1992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국구로 출마해 당선. 민주자유당 총재, 민주자유당 대통령후보 선출. 국회의원직 사퇴로 39년간 의정활동 마감.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
- 1993 대통령 취임
- 1995 신한국당 총재
- 1998 대통령 퇴임
- 2003 유석 포병목 박사 기념사업회 명예회장
- 2004 북한민주화운동명예위원장
- 2008 한국티볼협회 총재
- 2011 범국민안보공감캠페인 명예위원장
- 2015. 11. 22 서거

출생에서 타계까지 ... 영욕의 삶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애는 영욕과 굴곡으로 얼룩져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27년 경남 거제 장곡면 외포리에서 아버지 김홍조 씨와 어머니 박부연 씨 사이에서 6남매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멀지 않을 소유한 부친 덕택에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통영중에 다니다가 광복 후 부산제2중학교(경남중) 3학년에서 편입한 그는 당시 하숙집 책상머리에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이라는 글을 써서 놓는 등 대통령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51년 장택상 국회의장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가 만 25세인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유당 공천을 받아 고향인 경남 거제에서 출마해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돼 이후 9선까지 지냈다. 최연소 기록은 우리 의정사에서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으며 9선은 김중필 전 국무총리, 박준규 전 국회의장과 함께 갖는 최다선 기록이다. 김 전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3선 개헌(일명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추진하자 반발해 자유당을 탈당, 민주당 창당에 합류했다. 이후 등장한 박정희 정권 때는 민주화를 외치며 민주 지도자로 부상했다.

1971년 대선을 앞두고 '40대 기수론'을 주창하며 세대교체의 돌풍의 주역으로 부상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평생 라이벌인 김대중 후보에게 패배했다.

1974년 전당대회에서 47세에 최연소로 신민당 총재에 선출된 뒤 "박 대통령은 물러날 준비를 하라.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던 그는 같은 해 10월 YH구역 여공들이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인 사건을 계기로 총재 직무집행 정지를

25세에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

40대 기수론 내세워 정치 중심에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끌어

당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됐다. 당시 그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을 남겼다. '전두환' 신군부의 5·17 쿠데타로 2년간 가택연금까지 당한 김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3주년을 맞아 2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사그라져가던 민주화의 의지를 다시 일깨웠다.

1984년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결성하면서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전열을 재구축한 김 전 대통령은 1985년 2·12 총선에서 '신민당 돌풍'을 일으키며 신군부 정권에 큰 타격을 입혔고 결국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주도하며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뤄냈다.

하지만, 1987년 대선에서 통일민주당을 이끌던 김 전 대통령은 김대중 후보와 야권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이후 치러진 1988년 총선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민주당에 제1야당 자리를 내줬지만 1990년 집권 여당이던 민주정의당과 '3당 합당'을 전격 결행했다. 그는 "호랑이를 잡으려 호랑이굴에 들어간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치적 야합"이라는 비판으로 자유롭지 못했다. 그는 그러나 당내 권력투쟁에서 승리하면서 1992년 치러진 대선에서 여당 후보로 나서 대한민국 14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994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수석비서관들과 환담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하나회' 해체·금융 실명제 도입 큰 업적

아들 구속·성수대교 붕괴 등 줄이은 사고

YS가 남긴 공과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공과가 뚜렷이 대비되는 대통령으로 꼽힌다. '변화와 개혁'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진정한 민주주의 뿌리를 내린 문민 대통령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반면 한·미 갈등 등 외교문제와 외환위기를 부른 무능한 지도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육사 출신의 사조직인 '하나회' 해체와 금융·부동산 실명제 도입, 지방자치제 실시, 전방위적 부패 척결 등을 통해 사회 시스템 전반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

이 가운데 금융실명제는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어 부정부패를 막고, 공정하게 과세를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과거사 청산을 위한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을 하면서 '5·18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12·12' 및 5·18에 대한 책임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친인척 비리외 외환 위기에 따른 국가 부도 사태 초래로

임기 초반 누렸던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대부분 상실하며 극과 극을 달린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정권 마지막 해인 1997년 외환위기는 금융기관의 부실, 방만한 경영을 해온 대기업의 연쇄 부도, 단기 외채의 급증 등으로 모라토리엄(재무지불유예) 선언 위기에 이르자 IMF(국제금융기구)에 구제금융을 신청해 사실상 경제 주권을 내줬다.

또한 아들 현철씨가 청와대와 국경원 등에 측근을 앉히고 사실상 국정을 농단한다는 비판을 들었고, 한보비리 특혜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는 등 집안 단속을 못했다든 오점도 남겼다.

이외관계 YS정권 내내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고공화국'이란 오명을 안기도 했다. 1993년 10월10일 서해 페리호가 전북 부안군 앞바다에서 침몰해 29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1994년 10월21일에는 서울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초유의 사고가 일어났고, 1995년 4월28일 대구 지하철 1호선 공사장 가스폭발 사건으로 101명이 사망하는 등 24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같은 해 6월29일에는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무려 501명이 사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회의원직 제명에 "닭 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저항'과 '직설' YS 어록

22일 서거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유신 시절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며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 의식을 드러내는 등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어록'을 남겼다. 다음은 김 전 대통령의 주요 어록.

▲순교의 언덕, 절두산을 바라보는 이 국회의사당에서 나의 목을 자른 공화당 정권의 폭거는 저절로 두산이 준 역사의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 (1979년 국회의원에서 제명되자)

▲단식 이후 마음을 완전히 비웠다고 생각했는데, 설산을 바라보니 더 비워야겠다는 아쉬움이 살아나는 것 같다. (1987년 지리산 등반 중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은 축제 속에 이뤄져야 한다. 박종철군 사건으로 온 국민이 우울한 지금, 민정당의 6·10 전당대회에서 하는 대통령 지명대회는 초상집에서 춤을 추는 격이다. (1987년 국회의원사당 단식농성 중 인터뷰에서)

▲선거혁명을 통한 민주화가 내 지론이었으나, 이 정권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젯밤과 오늘 내내

생각한 끝에 이 정권을 완전히 타도할 것을 결심했다. 나는 박정희 정권을 타도시킨 사람이다. 가깝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타도할 것이다. (1987년 대통령 선거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째 이런 일이... (1993년 최형우 민자당 사무총장 아들의 대입 부정과 관련해서)

▲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사랑을 받지 못, 또 한편으로는 달리는 기차를 보고도 쫓는다. 그러나 개가 쫓는다고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 (1994년 '개의 해' 의미를 되새기며)

▲이번 기회에 일본의 버려진마리루를 고쳐놓겠다. (1995년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치인의 거듭된 망언에 대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아들의 허물은 곧 아버지의 허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1997년 차남 현철씨의 한보사태 이권개입 의혹에 대해)

▲아버지와 딸은 다르다. (2001년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를 평가하면서)

▲나도 23일간 단식해 봤지만, 굶으면 죽는 것은 확실하다. (2003년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를 방문해 단식 중단을 종용하면서)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연합뉴스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광주 문화 다양성의 날 2015

다양한 문화를 품고 광주에 터를 잡은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015. 11. 27(금)~11. 29(일)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작은도서관 일대

전시 및 체험 11. 27(금)~29(일) 10:10~16:00	본 행사 11. 29(일) 13:00~14:30	부대행사 계단시장 11.27(금)~29(일) 이벤트 11.29(일)
--	---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광주문화재단